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시큐리티 분야의 교육적 역할증진

박상균* · 김진환*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시큐리티 분야의 교육적 역할증진에 대하여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실천 해 나아갈 방향을 제공하고자한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6,7,8세 아동전기의 부모 36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아동실종예방교육의 참여도와 실태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전사적 통계처리를 실시하였고 빈도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의 교육담당자의 올바른 선택과 가정에서의 실종예방 교육의 참여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얼마나 자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아동실종예방교육에 대한 요구 및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Study on promoting the educational role of security sector to prevent child missing

SangKyun Park* · JinHwan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future direction recognizing the educational importance and to present the way ahead that practices correctly for improving an educational role on security sector to prevent child missing.

Therefore, it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 that is "Research on participation grade of education to prevent child missing and the actual condition" made by researcher of this study which is on 363of parents of pre-children of 6,7 and 8years old in a kindergarten and an elementary school where i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It operated to take processing enterprise statistics using SPSS/WIN 12.0 for getting data, and analyzed frequency and t-verification.It investigated correct selection of an education specialist on preventiv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grade of education to prevent missing on home, how often, how it is conducted, then what requirement for educationto prevent child missing and participation grade is, whether difference is in accordance with gender of parentsand gender of child.

Key words : child missing., kidnap, preventive education

1. 서 론

사회구성요소의 가장 기본인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 사회의 지속성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하고 안정된 성장 발달은 행복한 가정생활의 초석이며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실종발생은 아동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양육을 저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은 해당가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범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2008년 12월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8세 여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납치하여 강간상해를 한 조두순사건과 2010년 6월7일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학생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눈을 가린 후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1].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실종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와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1970~1980년대부터 ‘세이프티 하우스(safety house)’,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 ‘글록 부모(Block Parent)’ 등 민간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2008, 신순갑·이정환). 아동실종 대책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일 것이다.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실종아동 예방교육일 것이다. 실종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부모와 아동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큐리티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찰과 민간단체의 예방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종아동 예방교육을 위한 시큐리티 분야의 역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실종아동의 개념과 발생현황

2.1 실종의 개념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를 미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되어왔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실종아동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종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종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여기서 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에 제한하지 않고 성인을 포함한다[10].

‘약취·유인’은 그 사람을 협박이나 폭력 등으로 피어내어 소재지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 안에 두어 자유를 지배하는 행위로 아동을 유괴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해하는 사례가 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내버리는 행위로 2004년도 경찰조사에 의하면 실종으로 접수된 아동 중에 유기한 후 허위 신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유기는 경제적 사정, 이혼, 아동의 장애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게 되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은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로 청소년의 연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에 미 발견으로 남아있는 아동들 중 대부분이 가출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순 미아’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듯 아동이 실종되는 상황은 위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예컨대, 아동의 실종은 찾은 이후에나 그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신속한 사례판정으로 초동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제정 전에는 9세 이상의 아동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초동조치가 늦어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장기 실

종아동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장기 실종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신고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아동들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아동이 범죄유형이 아닌 미아유형으로 발생하여 빨리 복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실종아동 발생 현황

실종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 경찰청(182)으로 신고하게 된다. 대부분의 실종은 48시간 이내 발견되어 부모에게 인계되고 48시간 이상 미 발견된 아동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2013년 경우는 총13,305건이 실종신고 되었다. 실종아동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실종아동 발생현황

사례	아동		
	발생건수	발견건수 (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2011	28,099	27,961	138
2012	27,295	26,988	307
2013	13,305	12,655	650

자료 : 실종아동전문기관
개정(13.6.4) 실종아동법 적용 산출(09~13.7월)

3. 실종아동 예방의 정책현황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다. 그러나 실종아동의 발견이나 예방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미

아 발생 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 개선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경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방

에 힘써야 한다. 실종아동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3.1 실종아동전문기관의 교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위탁을 받아 실종아동 및 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사회복지전문기관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종예방 인형극 교육을 서울을 비롯한 11개 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 실종예방 워크북, 노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경찰청 182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과 치매노인의 신고, 접수, 조회 및 전산입력 등 실종아동에 대한 찾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기 위해 경찰청이 설립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 등(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지체인, 발달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의 찾는 신고와 보호 신고를 전화(국번없이)182 로 24시간 접수 및 처리하는 센터를 말한다.

3.2 학교안전교육

과거 재량교육활동으로 안전교육 시간이 편성되었지만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관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대비하여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실종·유괴 예방교육에 대한 의무화하고 해당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다.

3.3 예방 캠페인

‘슬픈 숨바꼭질 끝내기-2009 미아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세계실종의날이 제정되고 2012년 전국6대도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를 대상으로 “경찰청과 함께하는 실종예방 3,6,9 캠페인” 찾아가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3.4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보호와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이다. 2008년 4월 도입되어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놀이터 주변의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전국에 25,15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금년부터는 아동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수도권지역을 5,882명으로 대폭 확대 시키고 운영·관리기관을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3.5 엠버경고시스템 도입

엠버경고시스템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 유괴·실종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2007년 4월9일 경찰청·건교부·서울시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엠버경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종아동 발생 시 전광판·방송·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실종아동의 조기발견과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6 사전등록제도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전등록 제도는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시행.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들어 등록률이 저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실종 및 유괴예방 교육의 필요성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동에게 큰 심

리적·정서적 충격일 것이다. 그만큼 아동은 상처입기 쉬운 존재이며 늘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유괴범죄는 의사능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유괴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좀 더 어린 시기에 유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유괴 사건의 발생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사건의 발생 장소와 시기, 범죄자와의 관계, 어린이 유괴방법, 범죄자의 범행동보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피해자의 집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며, 6월에서 8월까지의 여름철에 범행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아동유괴의 경우 억지로 끌고 가기 보다는 부드러운 속임수를 쓰거나 친근감을 주어 아동들이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문화가 어른들에 대해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쳐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어른들에게 아동 등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아동 발달특성상 판단기준과 방어기술이 부족한 아동기에 학부모들과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종아동 발생 실태를 정확히 분석, 연구하여 부모 및 아동대상을 통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고 무엇보다도 실종아동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5. 실종예방을 위한 부모들의 교육적 참여도 분석

5.1 실종예방교육의 교육담당자로서의 직업 차이

<표 2>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 담당자

자녀성별		교육 담당자					전체
		부모	경찰관	경호원	담당교사	기타	
남자	빈도	65	51	0	52	7	175
	%	37.1%	29.1%	.0%	29.7%	4.0%	100.0%
여자	빈도	81	33	2	53	5	174
	%	46.6%	19.0%	1.1%	30.5%	2.9%	100.0%
전체	빈도	146	84	2	105	12	349
	%	41.8%	24.1%	.6%	30.1%	3.4%	100.0%
$\chi^2=7.951, df=4, p=.093$							

<표 2> 자녀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 담당자를 살펴보면 남자에서 부모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당 교사가 29.7%, 경찰관이 29.1%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부모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당교사가 30.5%, 경찰관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성별에 구분 없이 선호하는 교육 담당자가 비슷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5.2 실종예방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별 차이

<표 3> 자녀 성별에 따른 실종아동예방 교육 여부

자녀성별		교육여부		전체
		예	아니오	
남자	빈도	117	58	175
	%	66.9%	33.1%	100.0%
여자	빈도	129	49	178
	%	72.5%	27.5%	100.0%
전체	빈도	244	107	353
	%	69.7%	30.3%	100.0%
$\chi^2=3.142, df=2, p=.208$				

<표 3> 자녀 성별에 따른 실종아동예방 교육 여부를 살펴보면 남자에서 예라는 응답이 66.9%, 아니오가 33.1%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여가 72.5%, 아니오가 27.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예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여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자녀의 성별에 구분 없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실종예방 교육내용

<표 4> 자녀 성별에 따른 가정교육내용

응답자		교육 내용				전체
		역할놀이를 통한 교육	대화를 통해 교육	아동과 함께 관련 자료보기	기타	
아버지	빈도	0	20	2	2	24
	%	.0%	83.3%	8.3%	8.3%	100.0%
어머니	빈도	2	199	22	5	228
	%	.9%	87.3%	9.6%	2.2%	100.0%
전체	빈도	2	219	24	7	252
	%	.8%	86.9%	9.5%	2.8%	100.0%
$=3.236, df=3, p=.357$						

<표 4> 자녀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에서 대화를 통해 교육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과 함께 관련 자료보기가 11.4%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대화를 통해 교육이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과 함께 관련 자료보기가 7.8%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가정에서 대화를 통한 교육과 아동과 함께 관련 자료보기가 주 교육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5.4 실종예방교육을 위한 정보 및 자료습득 경로

<표 5>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자료 및 정보 습득

응답자		습득 경로				전체
		전문 서적이 나 인터넷	친구 나 이웃	메스 미디어	부모 교육	
아버지	빈도	8	3	9	2	22
	%	36.4%	13.6%	40.9%	9.1%	100.0%
어머니	빈도	37	24	126	29	227
	%	16.3%	10.6%	55.5%	12.8%	100.0%
전체	빈도	45	27	135	31	249
	%	18.1%	10.8%	54.2%	12.4%	100.0%
$\chi^2=6.714, df=5, p=.243$						

<표 5>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자료 및 정보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아버지에서 메스 미디어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서적이나 인터넷이 36.4%, 친구나 이웃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서는 메스 미디어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서적이나 인터넷이 16.3%, 부모 교육이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에 구분없이 습득 경로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5.5. 가정에서의 아동실종예방 교육 실시과정에서의 어려움

<표 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실종예방교육의 어려움

응답자		어려움					전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서	예방교육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서	역효과 의 우려 때문에	유괴 및 실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버지	빈도	10	5	0	6	5	26
	%	38.5%	19.2%	.0%	23.1%	19.2%	100.0%
어머니	빈도	79	101	5	83	22	290
	%	27.2%	34.8%	1.7%	28.6%	7.6%	100.0%
전체	빈도	89	106	5	89	27	316
	%	28.2%	33.5%	1.6%	28.2%	8.5%	100.0%
$\chi^2=7.292, df=4, p=.121$							

<표 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실종예방교육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아버지에서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 효과의 우려 때문이 23.1%,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서와 유괴 및 실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각각 19.2%로 나타났다. 어머니에서는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 효과의 우려 때문이 28.6%,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가 27.2% 순으로 나타났다.

역효과의 우려는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의 풍토로 인하여 겪는 혼란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겪는 고민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5.4. 실종예방교육 참여도 및 실태조사

<표 7> 가정에서의 실종아동예방 교육 참여도와 실태 조사

		빈도	퍼센트
		부모교육 체험교실 참여 경험 유무	예
	아니오	341	95.5
	무응답	2	.6
주 참여 부모 교육 형태	강연회 토론회	8	2.2
	워크샷	2	.6
	면담	4	1.1
	수업참관 참여	14	3.9
	기타	2	.6
	무응답	327	91.6
	합계	357	100.0

<표 7> 가정에서의 실종아동예방 교육 참여도와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체험교실 참여 경험 유무에서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5%,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주 참여 부모 교육 형태에서는 수업참관 참여가 3.9%, 강연회 토론회가 2.2%, 면담이 1.1%, 워크샷과 기타가 .6% 순이었다.

5.5 아동실종예방교육을 위한 적당 교육장소

<표 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적당 교육 장소

자녀 성별		교육 장소					전체
		집에 서의 가정 학습	지역사회 체험학습 시설	학교 기관	경찰 서	기타	
남자	빈도	21	66	75	13	2	177
	%	11.9%	37.3%	42.4%	7.3%	1.1%	100.0%
여자	빈도	41	51	72	4	4	172
	%	23.8%	29.7%	41.9%	2.3%	2.3%	100.0%
전체	빈도	62	117	147	17	6	349
	%	17.8%	33.5%	42.1%	4.9%	1.7%	100.0%

=13.798, df=4, p=.008**

<표 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적당 교육 장소를 살펴보면 남자에서는 학교 기관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체험 학습 시설이 37.3%, 집에서의 가정 학습이 11.9%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학교 기관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체험 학습 시설이 29.7%, 집에서의 가정 학습이 23.8%로 나타났다. 이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chi^2=13.798, p<.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기관과 지역 사회 체험 학습 시설을 선호하는 반면, 여 자녀를 둔 부모는 두 장소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가정 학습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시큐리티 분야의 역할방안에 대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학부모 교육에 관하여 증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실종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적 역할증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교육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과 유괴대상인 아동 전기의 자녀들에게 생활 속의 예방교육을 부모들과 교사들이 항상 실시해 주어야 하며, 또한 학부모 스스

로도 이에 대한 경각심과 능동적인 자녀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실종아동예방 교육 참여도와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실종 아동 예방 교육 실시 여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68.9%, 하지 않는 경우가 30.0%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실종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습득 방법에서는 매스미디어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서적이나 인터넷이 12.6%, 부모 교육이 8.7%, 친구나 이웃이 7.6%, 기타가 2.5%, 전문가가 .6%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체험교실 참여 경험 유무에서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5%,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이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실종예방교육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아버지에서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 효과의 우려 때문이 23.1%,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서와 유괴 및 실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각각 19.2%로 나타났다. 어머니에서는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 효과의 우려 때문이 28.6%,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가 27.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성별에 구분 없이 어려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소 실종상황을 가상해 각 상황에 따른 예방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생활 속 내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결 론

최근 들어 국가적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노력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 되어있는 각각의 구조 속에서 효과적인 운용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 경찰관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한시라도 빨리 상호 협력할 수 있

는 체계와 더불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종아동 및 안전관련 교육이 폭넓게 시행되어야겠으며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분야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 강사의 양성이 적극 필요 할 수 있겠다. 현재 실종아동예방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교육 방법에 있어 주로 대화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프로그램 및 연구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시큐리티 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교육에 대한 상호간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처 프로그램의 모색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나의 자녀이자 우리들의 미래다. 국가의 근간인 가족을 지키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시 해야 될 사회적 과제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결코 지나치지 않다.

참고문헌

- [1] 박윤기, “통합적 학교안전망 구축방안”, 경찰연구논집, 제9호, pp.28-50, 2012.
- [2] 신순갑, 이정환. “엄마도와줘”, 도서출판 달과 소, 2008
- [3] 이상현, 유아의 유괴·성폭력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참여도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 박상균,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조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5] 박은미, 이시연. 장애인, 아동 실종예방 부모교육을 위한 실무자 지침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2004
- [6] 송현진, 유전정보 DB구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정부의 실종아동대상 유전정보DB구축사업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7] 박세경,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8] 김형모, 조정아, 한국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제7권,제2호, pp.241-269. 2003
- [9] 김상호, 엠버경고 운영에 대한 주요 쟁점과 분석. 공안행정학회, 2006
- [10] 정익중, “한국의 실종아동·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실종아동전문기관, 2006
- [11] 한상철, 자율방법대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천안 범죄안전도시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2] 광보윤, 초등학교 및 주변지역의 범죄안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저자소개]

박 상 균 (Sang-kyun Park)



2004년 9월 경영학학사
2009년 9월 경호학석사
2013년 10월 경호학박사과정

email : propark42@naver.com

김 진 환 (Jin-Hwan Kim)



1987년 2월 체육학 학사
1991년 2월 체육학 석사
1999년 8월 이학박사

email : kjh2323@yongin.ac.kr